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 (8) (5/14/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5 장 “성경을 읽음”

롬 15:4 -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전 2:4 -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시 117:2 -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와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롬 2:11 -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롬 10:12 -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전 12:9 -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1. 우리가 성경에서 구해야 할 것은 고상하고 멋진 말들이 아니라 진리여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한 영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롬 15:4). 우리는 성경에서 고상하고 멋진 말들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교훈들을 배우려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오하고 어려운 책들만 읽으려고 하지 말고, 경건하고 단순한 책들도 읽어야 합니다. 저자가 학식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든,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이름 없는 사람이든, 저자의 권위를 보고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말을 누가 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는 데 집중하십시오(고전 2:4).

**말씀과 해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다(딤후 3:16). 그러므로 성경을 지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읽고 묵상할 때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조명’의 역사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히 4:12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렘 1:9-10 - 9.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10.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성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2.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잠시 살다가 가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시 117:2).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롬 2:11; 10:12). “호기심”이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흔히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겸손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읽어야 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위하여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인들의 말을 기꺼이 구하고 잠잠히 경청하십시오. 옛 사람들의 경구나 금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전 12:9).

### **말씀과 해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인간의 말은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며 역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영혼에 담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말씀의 잣대로 나를 성찰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시 119:93 -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지적 탐구심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이다. **시 42:1 - 하나님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한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 **시 1:1-2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은 성경 외에도 성경에 바탕을 둔 다양한 종류의 영적인 문헌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을 깨우치신다. 그러므로 영성의 사람은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쓰게 하신 유익한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고 공부하며 영혼을 살찌게 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인생길에서 주님을 보자.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을 붙잡자. 하나님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우리를 끌어 안으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2.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3. 주께서 세우신 미국장로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 갱신과 부흥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